무주 여행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무주향교 · 무주반디랜드 · 태권도원 등 6곳 상주 · 해설 서비스 제공

무주군이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유익하고 알찬 여행을 돕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무주군이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유익하고 알찬 여행을 돕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을 돕고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역사와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는 전문가들로, 무주군에는 영어 해설사 3명을 포함해 총 11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11월 / 10:00~17:00, 12~2월) 무주향교를 비롯해 최북미술관&김환태문학관과 무주반디랜드, 태권도원, 무주머루와인동굴, 적상산사고 등 대표 명소에 상주하며 해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주군관광안내소(063-320-2570, 1899-8687)를 통해 예약(여행 희망일 5일 전)을 하면 원하는 곳으로의 '투어(동행) 해설'도 가능한데 대상과 계절, 기간 맞춤형 여행코스와 맛집 안내로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청 관광진흥과 관광육성팀 장기진 팀장은 "모두가 3년~16년 경력의 베테랑 해설사들로 지난해만 단체해설 9백여 건을 포함해 6천여 건이 넘는 해설을 진행했다"며 "올해 추가로 4명을 더 선발할 예정으로 무주군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무주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관광객들의 재방문을 부르는 열쇠가 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매달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역량 강화 및 자기개발을 위한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지역자원 관련 해설 및 관광 정보교류, 친절서비스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국내 문화관광지 비교 답사를 비롯해 해설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해설사 현장 모니터 및 보수교육 등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전병선 무주군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고 유익한 해설을 통해 무주를 널리 알리고 다시 찾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크다"며 "언제든 찾아와주시고 동행을 예약해주시면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자연특별시 무주, 유구한 역사와 문화, 예술을 품은 무주 곳곳을 제대로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은 방문의 해를 맞아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행사를 진행 중으로, 지역 내 숙박업소와 음식점, 카페 등 이용객(10만 원 이상 소비자)을 대상으로 머루와인동굴과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천문과학관 입장료(2인)를 50% 할인해 주고 있다.

또 4월부터는 숙박이 가능한 반디랜드 통나무집과 레저바이크텔도 3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형 '무주반디여행권(11,900원)'과 '전북투어패스권(5,900원)'을 이용(전북투어패스 홈페이지와 네이버, 쿠팡, 옥션, 11번가 등 20여 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구매 가능)해도 알뜰한 무주여행을 즐길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웹소설 콘텐츠 거점사업 첫발

장수군, 작가컴퍼니 소속 웹소설작가 거점시설 입주

장수군은 2일 계남면 귀농귀촌임시거주시설에 ㈜작가컴퍼니 소속 작가 4명이 입주해 '웹소설 콘텐츠 거점사업'의 첫발을 내딛는다.

이번에 입주한 작가 4명은 앞으로 거점시설에 장기간 체류하며, 장수군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웹소설 창작활동을 하게 된다.

또 군 귀농·귀촌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지역의 단체·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과 행사에 참여해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도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할 예정이다.

조성된 거점시설의 작가 입주로 사업이 첫발을 디딘 만큼 장수군의 전라북도 웹소설 콘텐츠 거점화, 웹소설 인재 양성, 웹소설 콘텐츠 활용 프로그램 운영 등 민·관의 공동 대응 실천이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식 군수는 "작가컴퍼니 소속 작가들의 입주를 매우 환영한다"며 "웹소설 콘텐츠 거점사업을 시작으로 청년작가 유입을 통한 생활인구 증대와 함께 우리 지역에 디지털 콘텐츠 관련 다양한 사업과 활동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계남면 웹소설 작가 거주시설

한편 장수군은 지난해 12월 ㈜작가컴퍼니와 함께 '웹소설 콘텐츠 거점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공동 대응하는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스마트기기 활용 어르신 건강 관리 나서

진안군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oT) 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 1월부터 사업을 신청한 65세 이상 어르신 210여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사전 건강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자별 검사 결과에 따른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스마트 건강측정기기와 '오늘 건강'이라는 모바일 앱을 통해 매일 운동하기, 혈압 및 혈당 재기, 제때 약 먹기, 물 마시기 등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보건소에서는 참가자들의 기기 작동법부터 수행 여부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참가자들의 건강을 관리한다.

기본 사업 참여기간은 6개월이며 이후부터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참여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박모(70세) 어르신은 "나이를 먹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오늘도 내일도 건강하게 살고 싶어 시작하게 됐다"며 "직원이 도와주는대로 열심히 잘 따라해 건강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유휴재산 237필지 공개

진안군은 2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세입을 확충하고자 경작이 가능한 유휴재산 237필지에 대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일은 오는 7월 말까지이며 진안군청 홈페이지 내 군정소식 공고, 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안군은 매년 2회 유휴재산을 공개하고 있으며, 4월~9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며 변상금을 부과하고 행정기능이 상실된 재산을 발굴해 관련부서와 협의 후 용도폐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재산의 활용가치를 고려해 처분 및 대부계약 맺을 계획이다.

특히 군민들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토지 읍·면사무소에 공유재산 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해 대부계약 갱신 및 체결 등 민원상담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시설원예 농가 일손 부족 문제 해소 '최선'

라오스 계절근로자 29명 투입… 26일 11명 입국 예정

무주군이 지난해 11월 체결했던 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협약이 결실을 맺었다.

군에 따르면 이달 2차에 걸쳐 총 40명이 입국할 예정으로 이들을 딸기와 토마토 등 시설원예 농가에 투입해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무주군은 지난 1일에 입국한 29명을 우선 7농가에 배정했으며 이들은 건강검진(마약검사 포함)과 근로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후 3일부터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게 된다. 나머지 11명도 26일에 입국할 예정으로 3농가에 투입될 예정이다.

무주군은 이번 라오스 계절근로자 입국을 위해 지난해 11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측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폰홍군을 방문해 현지 근로자들을 직접 면접하는 등 사전 절차(인터뷰, 체력검정 등) 를 밟아 왔다. 2월에는 배정 농가를 대상으로 근로자 운영에 관한 사전 교육도 실시한 바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신상범 소장은 "농가 일손 부족 문제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영입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들어온 라오스 근로자들은 모두 상시 근로 인력이 필요한 시설원예 재배 농가에 투입해 일손 안정은 물론, 생산비 절감과 농가 소득 증대 효과를 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에서는 현재 라오스와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네팔, 필리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코로나로 하늘길이 막혀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총 179농가 77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657농가에 배정한 바 있다"며 "현지에서의 직접 면접과 지역내 결혼 이민 여성들의 가족을 영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도 이탈 문제 역시 최대한 막아 농가경영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 223농가에 총 1,017명을 배정할 예정으로 3월 말 현재 79명이 24농가에 배정돼 농가 일손을 거들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본격 운영

장수군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영농철에 맞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일 장수읍 안양마을 팔공권역 커뮤니티센터에서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배정된 30명 중 1차 입국한 베트남 근로자 18명에 대한 입소식 및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 후에는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마약검사, 농작업 안전교육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5개월간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해, 바쁜 영농철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등 지역 농업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식 군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간헐적으로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 영세 농가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올해도 농가와 근로자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직 입국하지 않은 12명은 30일경 추가 입국하여 농번기 각종 농작업에 일손을 보탤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건강한 돌봄놀이터 아동비만예방 효과 '톡톡'

진안군은 관내 지역아동센터(꿈터, 드림케어) 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한 돌봄놀이터가 참여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건강한 돌봄놀이터 프로그램은 3월부터 8월까지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활용해 눈높이에 맞춘 스티커북 등 아동용 학습교재 6종을 활용한 놀이형 영양교육과 전통놀이와 협동놀이 등의 활동형 신체활동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사업 전후로는 설문조사와 신체계측을 실시하여 비만도 평가 및 생활습관에 미치는 효과들을 평가할 계획이다.

참여 아동들은 "선생님이 오셔서 알려주시니 재밌게 즐길 수 있어서 프로그램이 기다려진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